

호주경

이 청동으로 된 사각형 거울은 남송시대(서기 1127~1279년)에 중국의 후저우(湖州)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거울은 뒷면에 일본어로는 ‘고슈신(湖州真)’이라고 읽히는 중국어가 새겨져 있어서 ‘호주경’이라 불립니다.

이 거울은 구시로 중심부의 누사마이 다리 근처, 구시로 강 옆의 수혈 건물터를 발굴하던 중 출토되었습니다. 사쓰몬시대(서기 600~1200년)에 이 지역에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수혈 주거는 1m 깊이의 흙구덩이를 나무 기둥으로 받친 초가지붕으로 덮은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비슷한 거울은 혼슈 중간에 있는 긴키 지방에서 북쪽의 도호쿠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본해(한국 동해) 연안을 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카이도에서 발견된 사각형 호주경은 이 거울이 유일합니다. 이 거울은 5세기 이후 오후츠크해 주변 지역에 정착한 오후츠크 사람들과의 교역을 통해 중국에서 구시로에도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